

“그 시절을 겪은 세대와 현재의 세대 연결시키고 싶었다”

제주 4·3 항쟁을 다룬 흑백 영화 '지슬' (2013)은 묵직한 역사를 들려주는 인상적인 작품이었다. 1년 뒤 그래픽 노블로 발간된 '지슬'을 만났고, 만화가 김금숙(50)의 이름을 기억하게됐다.

김 작가는 이후 위안부 이야기를 다룬 '풀' (2017), 발달장애 뮤지션 이야기를 담은 '준이 오빠' (2018), 박완서 소설 원작의 '나무' (2019),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꿈꾸었던 조선인 최초의 불세비키 혁명가를 다룬 최신작 '시베리아의 딸 김알렉산드라' (원작 정철훈)까지 한국 현대사의 굵직한 이야기를 소재로 한 작업을 이어왔다.

그의 작품은 미국,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등 전 세계에 번역출간됐고 수상 소식도 이어졌다. 특히 가디언 선정 '2019 최고의 그래픽 노블', 미국 뉴욕타임스 선정 '2019 최고의 만화' 등을 수상한 '풀'은 현재 '만화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미국 '아이스너 어워드' (Eisner Comic Industry Awards) 최우수 리얼리티 작품상 등 3개 부문 후보에 올라 있다.

'시베리아의 딸 김알렉산드라' 북콘서트를 위해 광주를 찾은 김 작가를 만났다. 김 작가는 고향에서 태어나 유년시절을 보냈다. 프랑스에서 17년간 살았고, 2010년 뮤지션인 프랑시스 남편

과 귀국해 지금은 강화도에서 작업하고 있다. 김 작가는 역사와 관련된 작업이 많은 이유에 대해 “그 시절을 겪은 세대와 현재의 세대를 연결시키고 싶고, 과거를 통해 현재를 투영해 보고 싶어서”라고 했다.

“김알렉산드라 작업을 하면서는 자연스럽게 제 자신의 모습을 투영한 것 같아요. 저 역시 가난한 서민 계급 출신이고 프랑스에 이주해 살면서 글로벌한 시각을 갖게 됐지만 또 이방인의 고민도 가져야했죠. 노동 문제, 계급문제 여성으로 살아가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많았습시다. 그녀 역시 인종 차별, 민족 차별 등을 겪었을 테지요. '나무'의 주인공 역시 자기만의 고민, 내적 갈등이 많은데, 그 고민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던 인산들의 모습에 끌리는 것 같습니다.”

김 작가의 대표작은 위안부 피해자인 이옥선 할머니의 증언을 토대로 한 '풀'이다.

“2013년 앙굴렘페스티벌에서 위안부 소재 단편 '비밀'을 선보였는데 늘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가로서, 여성으로서 깊은 고민이 시작됐고 다시 취재하고 작업을 진행했죠.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핵심에 다가가려했어요. 한일 문제를 넘어 인간의 문제에 심층적인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죠. 외국에서는 보편성에 주

한국 현대사 그리는 만화가 김금숙 혁명가 '김알렉산드라', '나무' 위안부 소재 '풀' 등 전 세계 출간 만화계 아카데미상 3개 부문 후보 고향 고흥 어린시절 추억 '꼬쟁이'에

목한듯해요. 전쟁의 희생자에 대한 이야기, 폭력에 시달리는 여성의 이야기가 전 세계인의 공감대를 얻는 듯합니다. 폭력의 모습을 잔인하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방식도 공감을 얻는 듯하구요.”

“풀”은 올해 일본에서도 출간됐다. 일본 시민들의 자발적인 펀딩으로 이뤄진 일이었다고, 일본을 찾았던 김 작가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세종대에서 회화를 전공하고 무작정 프랑스로 떠나 스트라스부르 고등장식미술학교를 졸업한 그녀는 현지에서 설치와 조각을 공부했다.

“형제가 많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여성인데 예술가로 살아남을 방법을 고민하다 내 꿈을 위해 낯선 땅으로 떠나는 걸 택했어요. 스



스로 개척해보자 싶었죠. 나중에 들으니 어머니가 3일간 단식하면서 절 보내야 한다고 아버지를 설득했다고 해요. 한국에서 여성으로 살면서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어머니는 늘 공부 못한 것이 한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김 작가는 자료수집, 시나리오 작성, 콘티, 작화 등 모든 작업을 홀로 한다. 일일이 손으로 그리는 작업은 공력이 많이 드는 노동이다.

“조각은 재료 비싸고 작업실도 넓어야 해요. 가난한 유학생이 창작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이 될까 고민할 수밖에 없었죠. 연필 한자루와 종이 한장 있으면 어디서든 가능한 만화를 떠올리게 됐죠. 그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해요. 이제는 붓과 먹물, 종이와 저와 함께죠. 저만의 스타일로 에너지를 전달하려합니다. 제출할 회화여서 인지 재료와 나와의 촉감을

중시해요. 냄새도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전 디지털 작업이 불가능해요. 아직도 만화를 흥밋거리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래픽 노블은 진지한 이야기, 인간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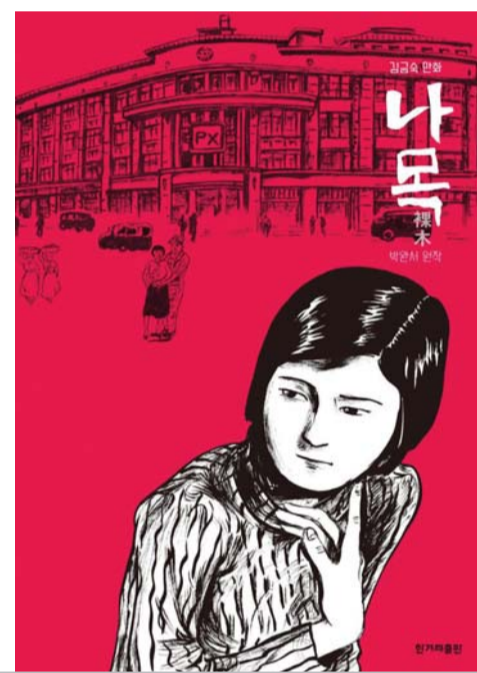
박완서 작가가 박수근과의 교감을 바탕으로 쓴 '나무'는 외국에서 청소년부를 하며 그림을 그리는 박수근 아들의 인터뷰를 보고 마음에 들었던 이야기였다. 아버지 작품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제끼리 싸움없이 우애있게 잘 지낼 수 있어 행복하다는 내용은 감동이었다. 박완서가 자신처럼 40살에 등단한 점도, '나무'에서 전쟁을 이야기하는 방식이 '직접적'이 아닌, 가족의 삶과 풍경을 통해 '공기처럼' 녹아있는 것도 마음에 들었다.

김 작가는 7살까지 살았던 고향(점암면)이 늘 마음 속에 있다고 했다. “어린시절의 추억은 내 삶에 좋은 영향을 끼쳤다. 자연에서 코 흘리며 뛰어놀던 기억들이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되더라”고 했다. 그 추억은 어린이 만화 '꼬쟁이' (3권)에 담겼다.

김 작가가 프랑스에 머물 때 출판한 만화는 7, 80년대 산업화에 따른 도시이주민들의 아픔을 담은 자전적 이야기 '아버지의 노래'였다. 그 시절의 가장처럼 고향을 떠나 서울로 이주했지만 삶은 팍팍하고 흥이 나지 않아 더 이상 노래를 부르지 않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담았다.

올해 발간 예정인 책은 실황만 이야기다. 그의 가족 역시 이산 가족이다. 6·25 때 할아버지 손을 잡고 북한에서 내려올 때 13살이었던 어머니는 16살 언니와 생이별을 했다. 이 책 역시 '김알렉산드라'와 함께 프랑스에서 번역 출간될 예정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德裕 (어머니품)’

수묵담채의 세계 빈석주 초대전, 20일까지 금봉미술관

다채로운 수묵의 세계를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금봉미술관이 연재(然齋) 빈석주 작가를 초대해 오는 20일까지 전시회를 갖는다. ‘봄바중’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아름다운 자연풍광을 먹의 농담과 채색으로 풀어낸 작품 35점을 만날 수 있다.

수묵담채로 묘사한 작품은 전통 수묵회화의

맛을 살리고 자신만의 현대적 해석을 녹여내 색다른 느낌을 전달한다.

‘노변정담’은 절개를 상징하는 대나무의 조형성이 눈에 띄는 작품이며 잔잔히 흐르는 물결과, 아스라히 피어노르지는 물안개. 봄을 알리기 시작하는 푸른 나뭇잎이 조화를 이룬 ‘남해서정’ 시리즈도 인상적이다.

그밖에 ‘소나기’, ‘웃음꽃’ 등 작품 제목에서

보통 주변의 풍경, 산과 나무, 꽃과 새 등을 감성적인 색채와 형태로 화폭에 녹여낸 작품들도 눈길을 끈다.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빈 작가는 수십 년간 철강사업에 종사하며 지필묵을 벗 삼아 오랫동안 작품활동을 이어왔다. 국제문화교류협회전, 세계서법문화대전, 남농미술대전 등에서 수상했다. /김미은 기자 mekim@

광주문화재단 맞춤형 워크숍 설문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맞춤형 워크숍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설문은 하반기 창의예술교육연구소 워크숍 방향 수립과 설계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번 설문조사 명칭은 ‘WWW (당신이 원하는 워크숍은? - What Workshop do you Want?)’. 창의예술교육연구소는 문화예술교육 실행자와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2회 워크숍을 진행하고 문화예술교육 리서치 작업, 콘텐츠 개발 모의 활동을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해당 링크(<https://forms.gle/qSwYsCQYtsoz45E99>) 접속을 통해 오는 26일 오후 6시까지 조사에 응답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아이스크림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워크숍은 7월 중 추진되며 문의 문화예술교육팀 062-670-5763.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SINCE 1982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부산 행사관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벤들리관광호텔 “각종 연회 행사”는 **벤들리 관광호텔과 함께!!**

프로야구단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각종 “세미나, 가족모임(피로연, 칠순, 팔순 등)”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십니다. 최고의 맛과 최상의 서비스로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대연회장(180명), 소연회장(30명), 스카이라운지(80명) 예약 운영

예약문의 062)236-5881~2
찾아오시는 길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10번길 5 (볼로동)